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4

VOL.173

MAY + JUNE

Gratitude



INTRO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매일 감사하는 태도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5월과 6월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대자연의 품에 머물며
호국원을 방문하며

오늘을 가능하게 한 근원을 떠올려 보라고,
가슴 속에 한껏 차오르는 '감사'를 느껴보라고.

Gratitude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

2024
VOL.173
MAY + JUNE

GRATITUDE



발행일

2024년 5월 17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9-3444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빛나는 KNF

- 06 요즘, KNF는
- 10 클릭! 인사이트
안전한 방사선 활용,
그 뒤엔 용감한 선구자들이 있었다
- 14 안전 알림이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18 KNF 사람들
조직예산부의
살랑살랑 봄나들이

살맛나는 KNF

- 24 즐거운 심포
돈독한 형제애에 마음이 살찌는 곳
예산 대흥슬로시티
- 30 지금은 뉴노멀 시대
新공동체의 탄생
시대가 만든 '조립식 가족'
- 34 그땐 그랬지
빨간 내복에서 콘서트 티켓까지
효도 선물 트렌드 변천사
- 36 문화의 발견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 38 문학의 속삭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어
'행복한 것
『행복의 기원』
- 40 해시태그 이벤트
- 42 독자 마당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4. 5. 1. ~ 7. 31.
”

신고방법
 청렴포털,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CONTENTS



빛나는 KNF
+
요즘, KNF는

NEWS

2024
Vol.173

May + June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우리 회사가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자 매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2020년부터 5개의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공기업형 32개, 준정부형·기타형 102개) 중 우리 회사는 준정부형·기타형에 속하며 지난 2021년, 2022년 평가에 이어 2023년도에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공공기관의 지속성장에 필수조건이라는 CEO의 강한 의지 아래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회사의 성장'이라는 동반성장 비전을 내걸고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주요 추진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판로 개척 지원과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 및 협력 이익 공유, 경영안정화 지원, 기업성장응답센터 등 소통 채널 확대를 전개해 왔다.

최익수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및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전원자력연료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상생’ 비료 후원

우리 회사는 3월 22일 회사 인근에 위치한 ‘1사 1촌 자매마을(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방문해 지역주민 대상 비료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자매마을의 니즈(Needs)를 적극 수용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지역사회 농업사에서 구입해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약 50여 가구가 지원받았다.

우리 회사는 이번 비료 후원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상생협력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1사 1촌 자매마을’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생산 농산품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최익수 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우리 회사는 4월 25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돼, 안전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업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관심도를 향상하기 위한 ▲임직원 자녀가 참여한 안전 포스터 전시 ▲심폐소생술 및 VR 안전체험 교육 ▲외부 전문가의 안전 심리학 특강 등 직원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됐다.

최익수 사장은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기본에 충실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직원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안전의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빛나는 KNF

+

클릭! 인사이트

안전한 방사선 활용 ☢

그 뒤에 용감한 선구자들이 있었다

Radiation



지금도 방사선은 때론 위험적인 존재지만 잠재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발견 초기에는 무방비하게 활용되며 위험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방사선의 진가를 알아차렸던 과학자들은 실험과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수많은 희생이 오늘날 방사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삶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했다.

글 김현철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



실험실에서 퀴리 부부 모습

방사선은 해롭기도 하지만,

잘 쓸 줄 알면

우리에게 무척 이롭기도 하다.



퀴리 부부의 신념 덕에 널리 쓰이게 된 '라듐'

독일 북쪽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엘베강의 하류에는 함부르크라는 큰 도시가 있다. 이곳 로뮐렌가에 있는 성 게오르크 병원 건물 앞에는 '모든 민족의 엑스선 및 라듐 순교자 추모비'가 있다. 1936년 4월 4일 제막 당시 추모비에는 15개국 169명의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1959년에는 359명으로 늘어났고, 추가 명단은 원래의 기동형 석조 추모비 옆에 있는 4개의 석판에 새겨졌다. 이름과 함께 추모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질병과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모든 국가의 방사선 전문의와 방사선사, 의사, 물리학자, 화학자, 기술자, 실험실 조교, 간호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은 의학에서 엑스레이와 라듐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용감한 선구자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업적은 영원토록 불멸할 것입니다."

명단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리 퀴리와 그녀의 딸 줄리오-이렌 퀴리도 있다. 방사선이라는 명칭은 마리 퀴리가 지었다. 그녀는 폴로늄을 발견하고 라듐을 발견한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남편이었던 피에르 퀴리와 함께 라듐을 추출하는 정제법을 특허로 신청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퀴리 부부는 라듐을 추출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고, 조그 월급도 사비로 쥐야 했다. 결혼식 때 입으려고 장만한 군청색 드레스를 실험복으로 입고 다녀 소매가 다 너덜너덜해졌지만, 옷 한 벌 살 돈도 아껴가며 실험에 몰두했다. 우산조차도 형겁으로 기워 쓸 정도였다. 점심도 소시지 한두 개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빵, 차 한 잔이 전부였다.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온 힘을 기울여 얻은 라듐과 정제법을 공개한 건 '과학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두 사람의 신념 때문이었다.

위험성을 알아차리기까지... 지속된 연구, 어긋난 쓰임

퀴리 부부가 발견한 라듐에서는 푸른빛이 났다. 그래서 피에르 퀴리는 이 푸른빛을 내는 물질을 라틴어에서 광선을 뜻하는 '라디우스(radius)'에서 따와 라듐이라고 불렀다. 퀴리 부부가 방사선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잘 몰랐다. 피에르 퀴리는 비 오던 어느 날 파리 시내에서 길을 건너다 마차에 치어 세상을 떠났지만, 방사선 탓도 있었다. 방사선에 워낙 자주 피폭되면서 피에르 퀴리는 다리를 절 정도로 몸이 상했다. 다리를 절지 않았다면 그를

뒹쳐오던 마차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리 퀴리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실험하면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실험복 주머니에는 늘 방사성동위원소가 들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검진하며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엑스선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녀가 쓰던 요리책에서는 여전히 방사선이 나온다고 하니 그녀가 방사선으로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간다.

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라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라듐으로 드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고, 시곗바늘에 라듐을 발라 어두운 밤에도 시계를 볼 수 있게 했다. 시곗바늘에 라듐을 칠하려면 끝이 뾰족하고 작은 붓을 써야만 했는데, 시계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붓을 똑바로 세우려고 자주 입에 갖다 대었다. 이 때문에 직공들의 입술이나 턱, 얼굴 뼈에 이상이 생겼다. 이 사건은 '라듐 소녀(radium girls)'라는 말로 알려지게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게다가 라듐을 차에 타서 마시기도 했고 라듐을 섞어 만든 음료수, 차약, 헤어토닉도 출시됐다.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동안 음이온이 나오는 옥 장판

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실제로 옥 장판에서는 음이온이 나왔다. 그런 옥 장판을 만든 재료가 토륨이었기 때문이다. 원료에 가이거-뮐러 계수기만 갖다 대어도 거기서 엄청난 방사선이 나왔다. 옥 장판의 원료가 몸에도 좋다며 토륨 가루를 물에 타서 먹기도 했다. 1900년대 초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2000년대 초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난 셈이다. 방사선의 유해함과 이로운을 모두 알고 있을 때에도 방사선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리석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진단, 치료 등 의학 분야를 넘어 첨단 기술에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방사선은 해롭기도 하지만, 잘 쓸 줄 알면 우리에게 무척 이롭기도 하다. 옥 장판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베타붕괴에서 나오는 전자를 의미한다. 토륨 대부분은 알파붕괴를 하며 반감기가 매우 긴 토륨-232지만, 토륨의 동위원소 중에서 베타붕괴를 하는 것들이 있다. 음이온은 거기서 나온다. 이 베타붕괴를 가장 잘 활용한 장치가 있다. 요즘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대체로 진단 장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를 갖추고 있다. PET는 베타붕괴를 하며 양전자를 방출하는 플루오린-18을 이용한 장치다. 포도당에 플루오린-18을 심어 플루데옥시글루코스(fluorodeoxyglucose: FDG) 주사액을 만든다. 이 주사액을 암 환자에게 주입하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암으로 간다. 플루오린-18은 반감기가 110분 정도 된다. 암세포 근처로 간 플루데옥시글루코스 속 플루오린-18은 베타붕괴를 하면서 양전자를 내놓는다. 이 양전자는 인체에 있는 전자와 결합해 쌍소멸을 하며 두 개의 광자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방출한다. 방출된 광자를 측정하면, 인체 속에서 자라난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PET는 진단 의학에서 응용되는 방사선의 한 예에 불과하다. 갑상샘 질환을 진단할 때 쓰는 방사성 물질 테크네튬-99m도 그 예 중 하나다. 방사선은 암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자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선은 에너지가 낮아서 인체의 피부를 투과하지 못하지만, 가속기를 이용해서 알파입자나 탄소와 같은 원자핵을 가속시키면 사람 몸을 투과할 수 있다. 특히 탄소 이온은 탄소 이온빔 방사선 치료(Carbon ion radiotherapy: CIRT)라고 부를 만큼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탄소 이온은 양전자를 띠므로 물질 속을 지날 때 전자를 떼어내며 물질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진행한 거리에 따라 잃는 에너지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브래그 곡선, 그리고 입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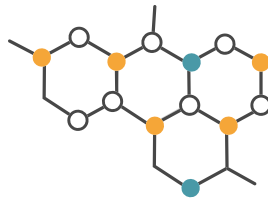
“과학의 목적이 응용에만 있었다면

놀라운 기술의 발달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



마리 퀴리가 전선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엑스레이 장비가 실린 구급차량 '리틀 퀴리'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온빔을 이용해서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들거나

나노공학에 응용하기도 하니,

방사선이 최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현대 대학병원 방사선과나 실험실에서 자주 쓰이는 PET-CT 스캐너

멈추는 순간은 뽀족이 솟아오른 피크로 표현된다. 원자핵은 물질 속을 진행하다 멈추는 순간, 에너지를 단번에 잃는다. 이런 현상은 이미 1903년, 영국 물리학자 윌리엄 브래그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를 브래그 피크(Bragg peak)라고 부른다. 따라서 탄소 이온빔을 적당한 에너지로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쏘아주면, 탄소 이온은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투과한 다음 그곳에서 에너지를 모두 잃으며 암세포를 죽인다. 탄소 이온을 이용한 암 치료는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이를 만큼 완치율이 높고, 간암의 경우에는 90%, 폐암의 경우에는 80% 정도로 높은 완치율을 보인다.

의학 분야를 떠나서도 방사선의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온빔을 이용해서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들거나 나노공학에 응용하기도 하니, 방사선이 최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삶을 가능하게 한 과학자들의 집념, 잊지 않아야

방사선의 응용이 다양하고 화려하기조차 하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지만, 정작 방사선의 응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쉽게 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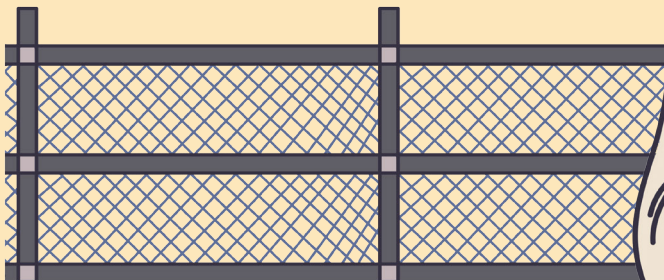
는다. 베크렐이 방사선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여러 도움을 줬던 20세기 초의 위대한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는 『과학과 가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실용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수단만을 요구한다. 이 요구에 대답할 가치는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그리고 부를 획득할 시간을 얻기 위해 예술과 과학을 소홀히 해야 하는지, 삶을 위해 모든 삶의 이유를 희생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응용만을 위한 과학은 불가능하며, 진리는 함께 묶일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이 말을 요약하면, “과학의 목적이 응용에만 있었다면 놀라운 기술의 발달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방사선을 연구하다 피폭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50년대에 가속기에서 방사선을 연구하다 백내장에 걸려 시력을 잃은 사람들처럼 방사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또 다른 위대한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가 말했던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 것이다(Wir müssen wissen. Wir werden wissen)”를 과학의 목적이자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뛰어난 기술 뒤에는 항상 위대한 과학의 발견이 있었다. **KN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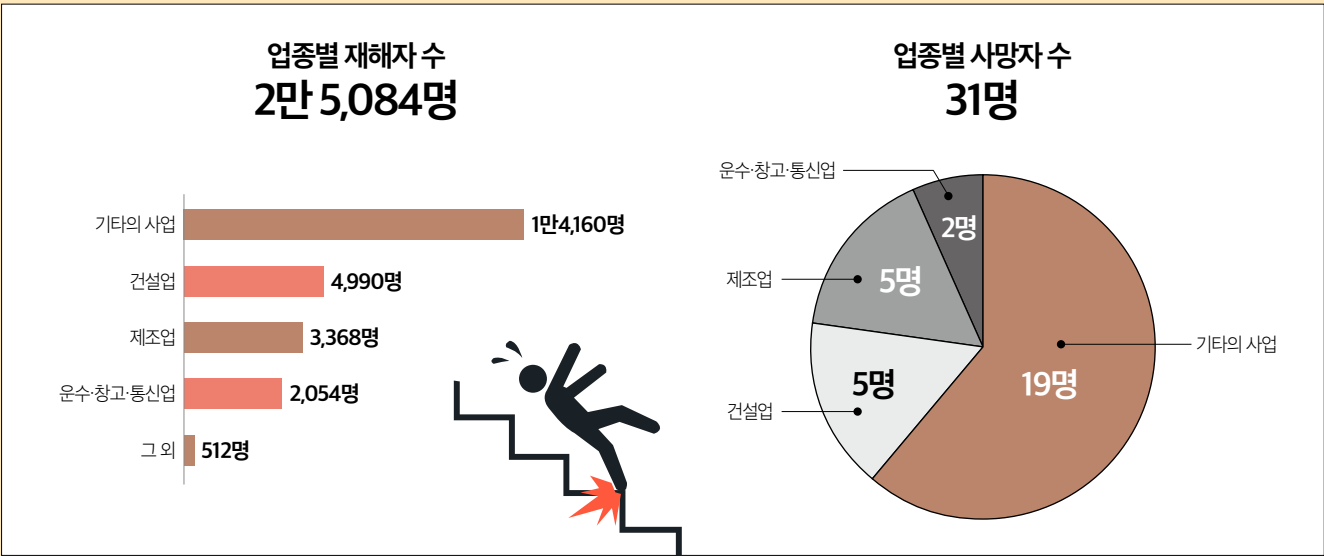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 '넘어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재해 유형이 '넘어짐 재해'인 바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2022년 넘어짐 사고 현황



기타의 사업에서의 세부 업종별 사고 현황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넘어짐 재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한다. 경비원 등은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두운 통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헛디딤, 화단 등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다. 조리 종사자는 기름,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집기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숙박업의 청소원은 빨래 등을 수거하거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세제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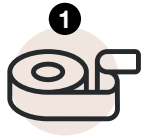




넘어지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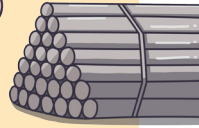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 요인

<p>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p>	<p>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p>	<p>바닥 표면 높이의 변화 (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p>
<p>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p>	<p>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p>	<p>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p>
<p>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딤 넘어짐</p>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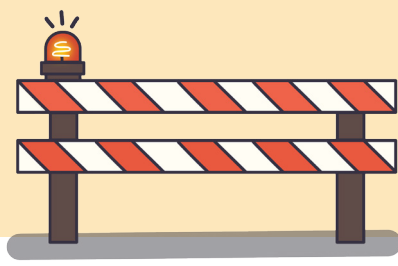
		
<p>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p>	<p>계단,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 제거 등 정리 정돈 실시</p>	<p>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p>
		
<p>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 청결한 상태 유지</p>	<p>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p>	



통로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바닥'은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이며,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한 20° 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이다. '통로'는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을 말한다. 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또한 통로 바닥에 전등, 이동 전선 등 장애물 등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한다. 안전 통로에는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한다. 안전한 통로가 아닌 곳은 방책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고,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한다.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제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힐링을’ 조직예산부의 살랑살랑 봄나들이

호탕한 리더를 중심으로 알뜰살뜰하게
한전원자력연료의 살림을 꾸려간다는 조직예산부가
잠시 휴식을 선언했다. 연초까지 부지런히 달려온
부서원에 주는 부서장의 선물이자 잠간의 환기로
다음으로 나아가갈 에너지를 보충하길 바라며 내린
결정이다. 짧은 시간 높은 충전율을 보여주는
데는 자연만 한 것이 없다. 자연 속을 거니는 동안
부서원들의 심신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는 듯했다.

글. 박예나 사진. 조병우

목표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중요
하다. 특히 하나의 조직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
갈 때 뼈대는 조직이 흩어지거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분야나 조건에 따라 조
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기본적인 골조는 사업
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관리할 인력을 구성하
고, 사업을 운용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봄나들이에 나선 조직예산부는 매년 골조를 세
우고 다듬는 이들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목표 또는
사업들이 추진될 때마다 선두에 서서 기반을 마련하
는 것이다. 언제나 시작점에 있는 이들답게 오늘 활
영에도 그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다. 통상 취재
진이 앞장서 길과 장소를 안내하지만 직무 특성과
지역민의 환대가 발휘된 듯 자연스럽게 안내자로 나
서는 모습까지 영락없었다.



빛나는 KNF

KNF 사람들





플라워랜드는 입구에서부터

화사한 분홍꽃이
흩날리며 반겼다

오늘 조직예산부가 봄을 맞으러 떠난 곳은 각양각색의 꽃이 한가득 피었다는 대전오월드의 플라워랜드다. 나날이 생기를 더해가는 자연의 품 안에서 계절을 담백 느끼러 찾았다.

“처음에는 동물원만 있었고 플라워랜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대전살이만 20년이라는 이철호 부장이 능숙하게 대전오월드의 변천사를 설명한다. 이 부장의 말대로 대전오월드는 2005년 대전동물원으로 출발해, 2009년 개장한 플라워랜드와 통합한 후 2016년에는 버드랜드까지 확장하며 종합테마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대전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둘러봤음직한 공간이다. 이지에 과장과 김도든 과장도 자녀들 손을 잡고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반면 나머지 부서원들은 이번이 첫 방문이라며 호기심이 묻어난 기색이었다.

열정만만 조직예산부가 단결하는 법

플라워랜드는 입구에서부터 화사한 분홍꽃이 흩날리며 반겼다. 튜립이 만개했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겹벚꽃이 줄이어 반길 줄은 예상치 못했다. 겹벚꽃은 분홍빛을 띠는 점이 벚꽃과 유사하지만 꽃잎이 겹겹으로 핀다는 점에서 다르다. 개화 시기도 달라 벚꽃이 진 다음에야 겹벚꽃을 볼 수 있다. 또 벚꽃은 어리하고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다면 겹벚꽃은 탐스럽게 피어 열매처럼 열린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올해 벚꽃을 마음껏 본 것도 좋았는데, 겹벚꽃까지 보게 돼 정말 반갑다”라고 양효정 과장이 해사한 표정으로 말했다. 플라워랜드의 중심부로 이어지는 길 내내 겹벚꽃나무가 양쪽에 나란히 마주 서 터널이 돼 주었다. 조직예산부는 평소에도 자주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라고 한다. 가벼운 관심사부터 진지함이 배가되는 업무 이야기까지 앞다투

어 쏟아놓는다고 점심 식사 후 편의점에서 각자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골라 사 먹는 소확행도 나눈다. 부서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주영 인턴도 출근 첫날부터 단박에 살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전사 차원에서 부서별 소통 강화와 업무 점검을 위해 진행하는 'BS(Brain Storming의 줄임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지난 11월에는 대전의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밭수목원에 방문해 모처럼 친목을 다졌다. 이번 호 'KNF 사람들'도 BS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직예산부 특유의 열정을 소개하고 싶어 신청했다고 한다.

“저희 부서는 분기별로 ‘팀 빌딩’도 합니다. 팀 빌딩은 부장님부터 인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며 원하는 주제로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제가 예산 업무를, 김도든 과장님께서 조직 업무를 부서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같은 부서지만 조직과 예산은 업무 성격이 달라서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팀 빌딩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양 과장의 꼼꼼하고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 함께 듣고 있던 부서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 속 힐링을 찾아가는 길

겹벚꽃이 끝나는 길목에 나타난 다리 하나를 건너자 튼실하고 철쭉으로 화려하게 뒤덮인 언덕 위로 정자 하나가 멋스럽게 자리해 있다. 전통정자와 화려한 꽃들의 근사한 조화를 즐기며 천천히 걷다 보면 세계절정원에



닿는다. 세계절정원은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는 플라워랜드의 대표 정원이다.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튼실한 색의 튼실이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토록 다양한 색감의 튼실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일이 흔치 않은 만큼 모두에게 이색적인 경험이 되었을 터. 노랗게 핀 꽃을 보던 박소정 대리기가 “희건 직원을 보면 프리지아가 떠오른다”라고 입을 뗐다.

“희건 직원은 청년인턴으로 저희 부서에서 3개월을 보내고 1년 후 정규직으로 같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함께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후배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프리지아의 꽃말 중 ‘당신의 앞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턴 기간부터 조직예산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희건 직원이 앞으로 회사에서 더 큰 꿈을 그리며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박 대리의 말에 김도든 과장이 “화사한 프리지아와 희건 직원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맞장구쳤다.

플라워랜드 곳곳에는 작고 큰 분수가 운영되고 있었다. 세계절정원과 화이트가든, 수국정원을 잇는 계단에도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다. 계단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잉어와 거북이 조각상이 비치돼 강가를 연상시켜 더욱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행운도 괄할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화이트가든과 수국정원을 가로지르는 물줄기를 따라가니 미로정원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보는 미로가 재밌는 듯 모두 미로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짙은 녹음 속을 정처 없이 헤매는 와중에도 만개하는 미소를 보니 자연과 휴식, 놀이가 주는 환기와 회복의 힘이 새삼 상기됐다.





“잘해주고 있는 과장들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서로서로 못다 전한 ‘감사의 마음’

테마공원에 온 기분을 내는 데 역시 주전부리만 한 것이 없다. 아쉽게도 플라워랜드 내 매점에는 테마공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츄러스는 없었지만 그만큼 입안에 즐거움을 선사할 회오리 감자, 소떡소떡, 핫도그가 함께했다. 그리고 꽃만큼이나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흥을 돋우는 슬러시도 사 들고 잠시 그늘에 앉았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 이철호 부장이 문득 “저는 요새 과장들에게 부쩍 고마운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조직을 가든 과장은 ‘허리’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끼어 해야 할 일도, 챙길 일도 많은 쉽지 않은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도 힘내라고 한 번쯤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노고를 알아주는 것만큼 직장생활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 그간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잠시 스쳐 간 듯 세 과장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어엿한 한전원자력원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챙겨주신 우리 부서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희건 직원이 말을 이어받았다.

“저희 선배님들은 모르는 것을 여쭙보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꿀팁을 가르쳐주세요. 열정도 애정도 넘치는 분들이죠! 덕분에 부서에도,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예산부는 ‘붉은 장미’를 닮았다”라는 양효정 과장의 비유가 다시 한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다가오는 6월은 장미가 철이다. 봄의 전령들이 지나간 자리에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 붉게 피어오르는 장미를 만날 수 있다. 마치 조직예산부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만 같다. 평화와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연 속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보냈으니 실로 힘차게 피어날 일만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자태만으로도 열렬한 장미처럼 기운찬 조직예산부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KNF



Information

대전오월드

위치: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70

구성: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쥬랜드, 조이랜드

mini interview 

부서원들과 함께한 봄나들이, 어떠셨나요?



이철호 부장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우리 멋진
부서원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도은 과장

잠간의 리프레쉬로
업무 능률이 높아진 것 같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사진 찍는 게 쉽지
않았지만, 덕분에 평소에도
더 밝게 웃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효정 과장

화창한 날 부서원들과
오월드에 와서 예쁜 꽃도
구경하고 추억의 슬러시도
마시며 힐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소정 대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남다른 조직예산부에서
일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들이하며
더욱 돈독해진 듯해
만족스럽습니다.



이희건 직원

저는 고향이 대전이 아니라
오월드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크고 볼거리가
많아 놀랐습니다! 덕분에
부서원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지예 기술과장

오랜만에 방문한
오월드에서 콧바람 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인턴

입사하자마자 부서와
사보 촬영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배님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살맛나는 KNF

+

즐거운 심포

돈독한
형제애에

마음이
살찌는 곳

대흥슬로시티
예산



이맘때처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있을까? 5월은 '까르르' 웃는 아이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아버지 사랑에 울컥해 눈시울이 붉어진다. 또 6월은 두렵지만 비굴하지 않게 이 땅을 지켜낸 이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앞새에 이는 바람이 더없이 맑고 향기로운 것은 나를 있게 한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순진한 신록에 눈과 머리를 씻고, 마음 구석구석까지 씻어본다.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예당호와 맞닿은 대흥슬로시티

동헌이 자리한 곳에 잔디가 눈부시도록 푸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의좋은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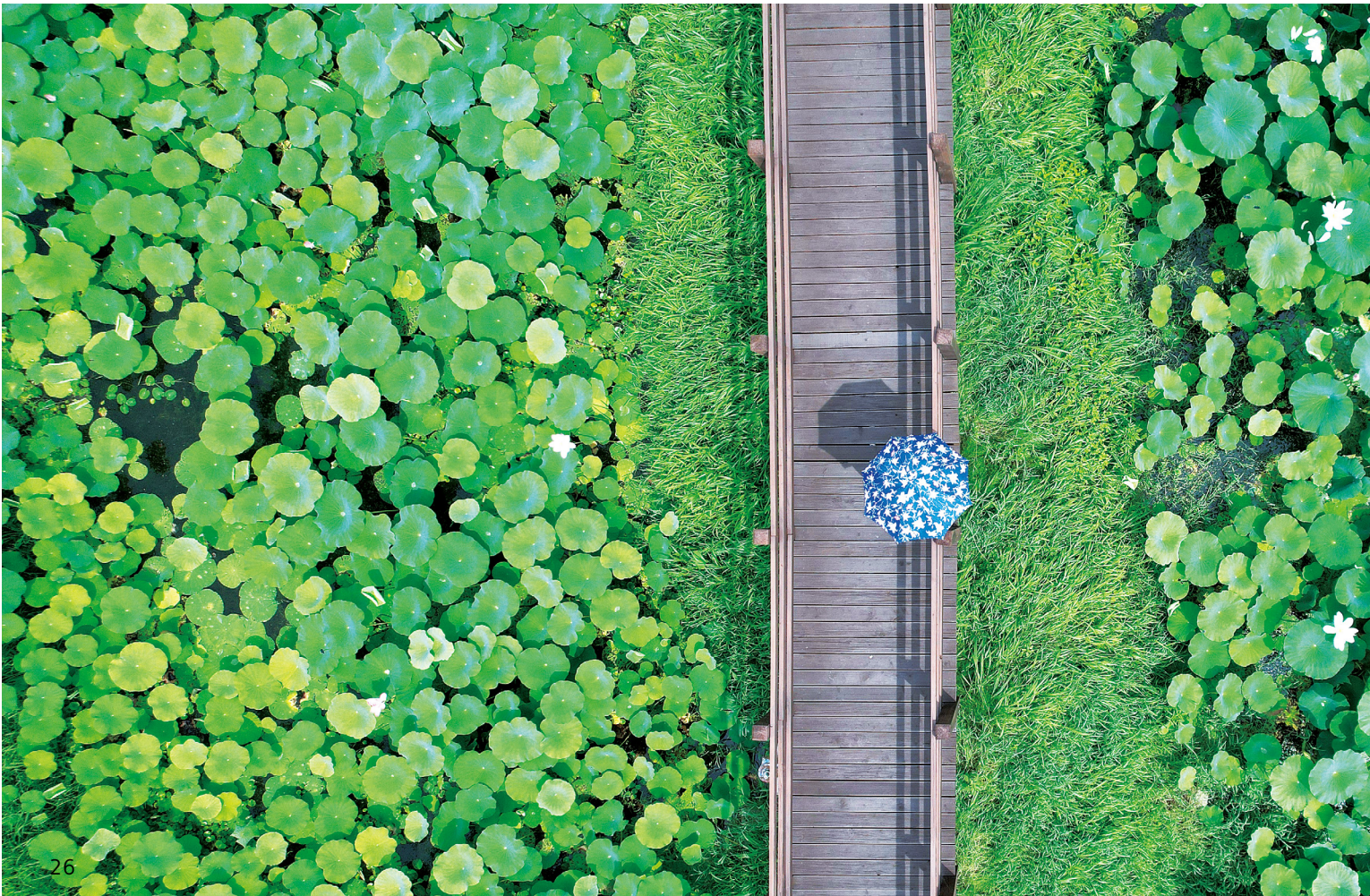
예산 대흥슬로시티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했다. 멀리 봉수산의 녹음과 예당저수지의 푸른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느끼게, 작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이끈다. 그 이끌림에 따라 여행자의 마음도 그들을 닮아간다.



대흥마을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그것이다. 1964년부터 2002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좋은 형제'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한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실존 인물로 고려 말 조선 초 대흥마을에서 호장을 지낸 이성만과 이순 형제다. 이야기는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가을걷이를 끝낸 형이 아우의 벼단에 자신의 벼가리를 가져다 두고, 아우는 반대로 형의 벼단에 본인의 벼가리를 가져다 두던 중 서로 만났다는 내용이다. 형제 간 우애를 강조한 이 내용은 《세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 백성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때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랐다고 한다. 이 사실은 1978년 가방고 인근에서 연산군 3년에 세워진 이성만형제효제비가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1975년에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광고도 만들어졌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구봉서와 각규석이 라면 한 그릇을 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며 서로 양보하는 내용이었다. 광고가 히트하면서

광고주는 경쟁사를 제치고 라면 업계 1위에 올랐다. 우애 깊은 형제의 이야기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의좋은 형제의 미담은 마을의 자랑거리다. 마을 어귀에 의좋은형제공원이 들어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공원은 봄이면 온갖 꽃들이 피어 생동감을 더하고 가을이면 의좋은형제축제가 열린다. 공원에는 의좋은 형제의 집을 재현한 초가 두 채와 함께 물레방아, 그네, 디딜방아 등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재미를 더한다. 초가 내부에는 물레로 실뿜기 하는 장면과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는 장면 등을 재현해 놓아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공원을 꼼꼼히 돌아보는 것만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의좋은 형제는 효심도 매우 깊었다고 한다.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봉양한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 공원에서 가장 넓은 공터에서는 토요일마다 의좋은형제장이 열린다. 주민들이 정성껏 키우고 수확한 농산물 먹거리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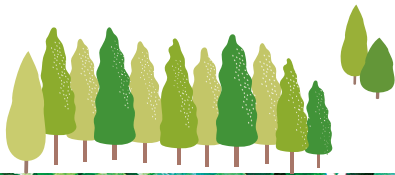




대흥마을 최초의 민간 병원인 대흥의원



의좋은형제공원에 재현된 물레로 실뽀기 하는 장면



물 위에 놓인 데크길, 주변에 연잎이 가득하다



느림이 전하는 소박한 즐거움

공원 한편에는 비석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다. 원래 대흥고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면사무소로 옮겼다가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 과거 이곳이 대흥읍성이 있던 자리였으니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이리라. 가장 큰 비석은 영의정을 지낸 김육의 영세불망비다. 자세히 보면 거북이를 닮은 귀두석의 일부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 깨졌다고 하니 이 또한 역사의 한 부분인 셈이다. 비석 아래에 한글 설명이 함께 적혀 있어 느긋하게 읽어볼 만하다. 바쁘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은가. 여긴 슬로시티니까.

비석 근각 맞은편에 있는 향나무 두 그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70년 전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미 10~20년생 나무였으니 수령이 100년에 가깝다. 그 뒤로 보이는 건물도 독특하다.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 모습이 여느 시골집과 사뭇 다르다. 아니나 다를까, 대흥마을 최초의 민간 병원인 대흥의원이다. 향나무 아래 예쁘게 꾸민 정원은 손바닥정원이다. 크고 화려한 정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손수 가꾼 소박하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정원이다.

마을에 깃든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슬로시티방문자센터를 찾아보자. 대흥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있다. 센터 건물은 황토로 지어 친근하다. 센터 마당에는 화단을 예쁘게 꾸며 방문자의 기분마저도 유쾌하게 한다. 작은 이 화단의 이름도 손바닥정원이다. 이름처럼 손바닥만 한 규모여서 더 이쁘고 양증맞다. 센터에서는 마을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지도와 홍보물을 제공한다. 예약하면 마을해설사들이 마을 구석 구석을 함께 돌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나 단체 방문객은 앨범 만들기, 연 만들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직접 만든 연은 대흥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날려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의좋은 형제의
미담은 마을의 자랑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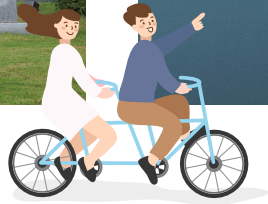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작품



옛 대흥보건소를 개조한 달팽이미술관



예당호조각공원의 조각품



동헌에서 잠시 쉬어가세

센터에서 대흥동헌으로 향한다. 동헌 뒤로 봉수산이 병풍처럼 드리웠다. 동헌 앞에 이성만형제호제비가 있고 그 옆에 의좋은 형제 동상이 자리를 지킨다. 동상은 벗가리를 든 채 마주한 형제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매우 사실적이다. 서로를 걱정하며 정을 나누던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품이 넓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얼굴을 떠올린다.

대흥동헌은 지방관이 업무를 보던 곳으로 1407년에 지은 뒤 조선 중기에 보수했다. 일제강점기엔 대흥면사무소로 개조해 1979년까지 사용했다. 면사무소로 사용했으니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면사무소가 동헌 옆 과거 대흥관의 아아가 있던 자리에 건물을 지어 옮길 때 옛 동헌을 복원했다. 그러니 동헌 주변에는 관청 건물이 여럿 있었던 셈인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동헌 입구에 걸린 현판은 원래 외삼문에 있던 것을 옮겨 달았다. 출입문 뒤로 잔디가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르다. 그 한가운데 동헌 건물이 자리를 지킨다.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인지 홀로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헌이 외로워 보인다. 사람도 외로움을 타듯 건물도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으면 생기를 잃는다. 애뜻한 마음에 대청마루에 앉아 나뭇결을 쓰다듬고 불어오는 바람을 큰 숨으로 들이킨다. 바람은 향기롭고 별은 따사롭다.

동헌 뒤쪽은 수십 개의 용기가 용기종기 모여 있다.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를 위해 만든 것이다. 담을 사이에 둔 동헌 뒤편에는 영조의 딸 화령옹주 태실비와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화비가 있다. 태실비에는 태향아리는 없고 비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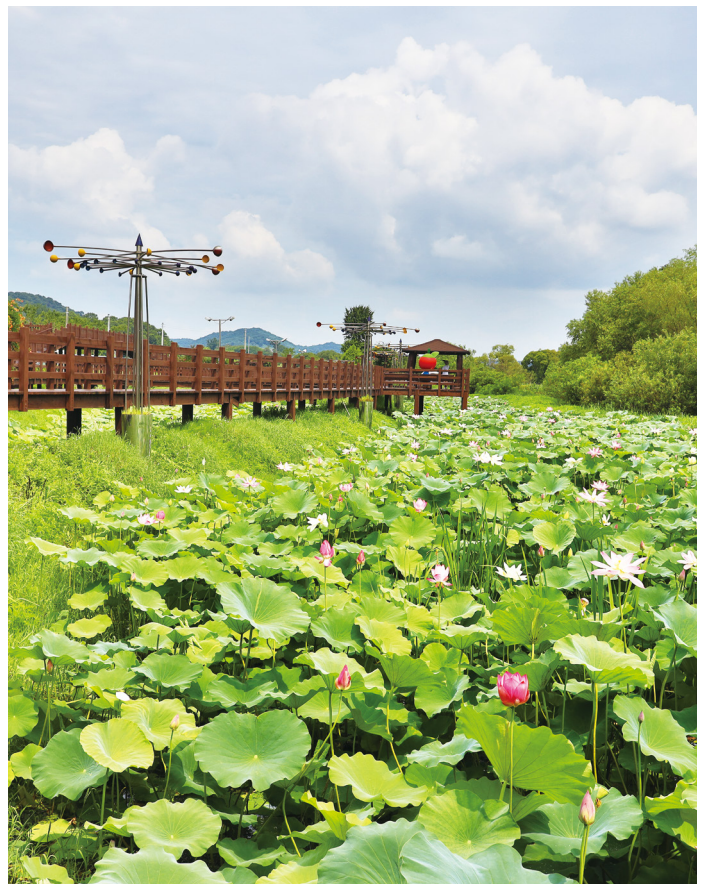
마을에는 특별한 문화공간이 있다. 옛 대흥보건소를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 세트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개조해 2013년에 문을 연 달팽이미술관이다. 미술관 이름은 세계 슬로시티 지역의 공통 이미지인 달팽이에서 따왔다. 그래서 미술관 전시도 느림의 미학을 담은 작품이 주를 이룬다. 미술관은 짚공예 체험장도 겸한다. 마을 어르신이 직접 체험을 진행하며 짚 달걀 꾸러미 만들기가 가장 인기다.

여유를 누아 마음의 그물에 담고 싶은 곳

신록이 기쁨의 찬가를 부를 때 우리는 그 품으로 걸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대흥슬로시티에서 예당호 출렁다리가 있는 예당호수변공원까지 7km 구간이 안성맞춤이다. 호수 위에 놓인 데크길은 물에 잠긴 울창한 나무 사이를 따라 이어진다. 건다가 잠시 쉬어갈 만한 벤치도 곳곳에 있다. 깨끗한 수면에 물이 흡수되듯 느린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윤슬과 어린 잎새들이 눈과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호수에는 낚시객들을 위한 좌대 낚시터가 떠 있는데 그 또한 멋진 그림이다. 나른한 이후, 시간이 물처럼 흘러간다. 모르긴 해도 낚시객들이 잡는 것은 물고기



예당호 출렁다리는 예산의 자랑이다



6월 중순부터 데크길 주변에 연꽃이 만개한다

형제가 내려놓은 게 벗가리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벗가리 대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travel information

i 여행 팁

의종은형제공원 앞에는 예당(우리물고기)생태체험관이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학습도 좋고, 옥상에서 바라보는 예당저수지의 풍경도 일품이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매월 첫째 주, 음악 분수는 매주 월요일 휴무다.

h 코스

대흥슬로시티(의종은형제공원)~달팽이미술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대흥동헌~예당호 조각공원~예당호 출렁다리

l 문의

대흥면행정복지센터 041-339-8986,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21, 041-339-7323

가 아니라 세월일 테다. 벤치에 앉아 세월을 뉘아보자. 힘들었던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그물 가득 채운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예당호는 저녁에 찾아도 좋다. 산책로마다 예쁜 경관조명을 밝혀 같은 풍경이지만 낮과 전혀 다른 특별한 운치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에 맞춰 시원하게 물을 뿜는 분수 쇼는 마치 물기둥이 춤을 추는 것처럼 화려하다. 예당호조각공원도 챙겨볼 만한 곳이다. 출렁다리 주변보다 찾는 이가 적어 한결 호젓하다. 예당호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덕분에 탁 트인 전망도 괜찮다. 공원에는 다양한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증견작가는 물론 공모작가들이 제작한 작품들이다. 예산의 특산품인 사과를 비롯해 인간, 자연, 사랑 등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표현했다. 여러 작품 중에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주역인 예산 출신 정극모 해군 제독과 국가유공자들의 동상도 있다.

이윽고 출렁다리 앞이다. 2019년 개통 당시 길이 402m를 자랑하며 가장 긴 출렁다리로 인기몰이했다. 하지만 한해 뒤 논산의 탐정호 출렁다리가 길이 600m로 놓이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런데도 예산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인증사진을 남길 만큼 변함없는 예산의 자랑거리다. 여행을 마치며 두 형제의 우애를 다시 떠올린다. 형제가 내려놓은 게 벗가리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벗가리 대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각박한 삶의 짐도 풀어놓을 수 있을 테니. 슬로시티에서 잠시 속도를 늦춰보는 것도 좋겠다.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으니. **KNF**

살맛나는 KNF
+
지금은 뉴노멀 시대



非친족가구의 급증,
新공동체의 탄생

시대가 만든 '조립식 가족'

오늘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하고 있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비혼, 입양, 경제적 이유 등 필요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조립식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법제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대 변화와 복잡한 사회 현상이 맞물리며 형성된 '요즘 가족'을 조명해 본다.

글. 김주희



Prefab

법적으로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 '61.7%'

Family



비친족 가구 50만 시대, 가족의 재구성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혼인과 혈연에 묶인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확장되고 있다. 친구, 애인, 동료와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비친족 가구는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이들이 사는 5인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그 형태도 다양하다. 비혼 가구, 동거 가구, 위탁 가정, 서로 돌보며 생계를 함께하는 노년 동거 가구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비친족 가구 수는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가구원 수는 2021년 이미 100만 명을 넘어 2022년 109만 명에 이르렀다.

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인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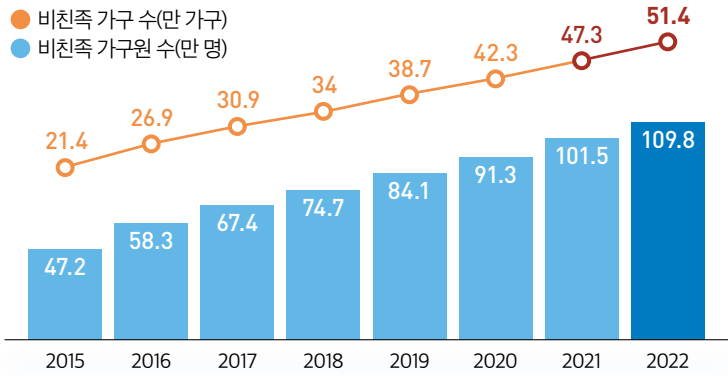
비친족 가구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업, 취업,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다인 가구로부터 독립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났는데, 이들이 월세나 생활비 등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동료와 함께 사는 등 가족 대안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다.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지며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비혼 동거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단순히 동거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공유하며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깊은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기도 한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는 61.7%가 '법적으로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서적 유대가 있는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도 45.3%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혼인·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2019년 67.5%에서 2021년 51.1%로 감소했다. 사회적 인식에서도 전통적인 가족과 비친족 가구의 경계선이 점점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V와 서점가에도 조립식 가족, 사회적 공감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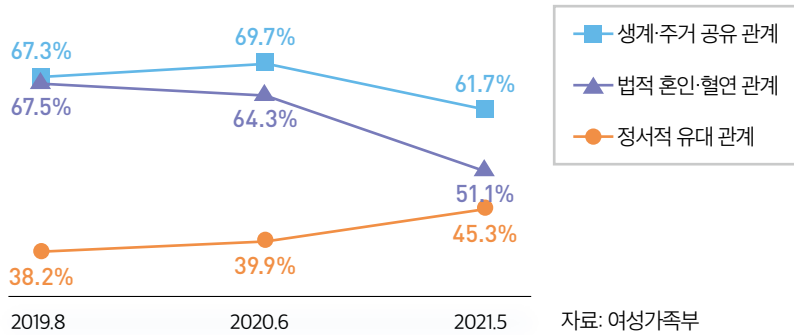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조립식 가족이 TV 프로그램이나 서적을 통해 소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베스트셀러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집필한 김하나와 황선우 작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지금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른다. 집을 공유하는 하우스메이트를 넘어 서로 절반씩 부담해 아파트를 사고 살림을 합쳤다. 여자 두 명과 고양이 네 마리가 한 식구가 되면서 W2C4라는 조립식 가족이 탄생한 과정이 큰 주목을 받았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여자와 두 여자 중 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전국 비친족 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여성가족부

세 사람이 함께 집을 짓고 사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의 저자는 결혼하지 않고 두 아이를 입양해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와 양육 공동체를 만들었다. 가족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가족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방영된 tvN <조립식 가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상 패턴과 관심사를 지닌 동거 가구,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한 커플, 경제적인 이유로 룸메이트가 된 남자 셋이 출연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깊은 가족애를 보여줬다.

다양성 포용하는 법제 마련 움직임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제도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로 정의한다. 즉 그 외 다른 형태의 가족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법적으로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국민연금 등에 근거한 각종 보상금·연금 등의 수급도 제한된다. 수술동의서 같은 의료적 결정을 할 때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인



2022년 tvN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조립식 가족>

조립식 가족을 문제적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급변한 현대사회에서 유대를
맺는 새로운 방식으로
존중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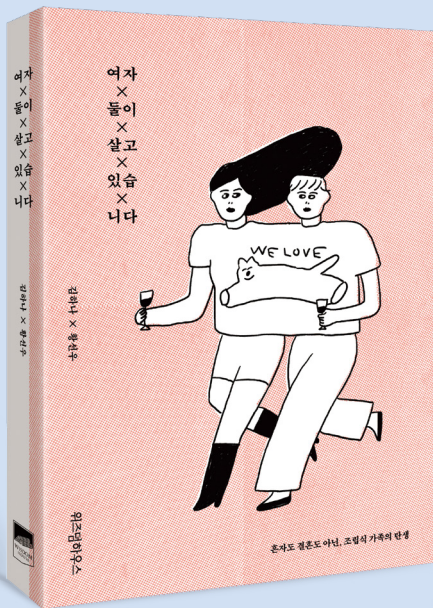
정을 받을 수 없고, 노인 사실혼 관계에 놓인 이들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에 다양한 공동체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23년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정의하고, 법률적 보호와 권리 및 의무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원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에게 기존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논의 진척은 아직 더딘 수준이지만 법적 가족의 틀이 만드는 차별 구조를 살펴보고 가족의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률혼과 동거 가구의 경계를 허문 외국 사례


비친족 가구에 대한 고민을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해 관련 제도를 정착시킨 나라들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부 주는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며 법률혼 가족과 동거 가족의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 구조를 구축했다.

프랑스에서는 동거 가구도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민연대계약’ 제도가 20년 넘게 시행 중이다. 동거인도 부동산, 세금, 상속, 건강보험 등에서 인정과 보호를 받는 제도다. 이를테면, 미혼 커플이 출산해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동거 가구에도 가정 수당을 제공하고, 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혼외 출산율은 급증했고, 이는 국가 전체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다. 스웨덴의 ‘삼보’ 제도는 동거 파트너가 법적인 보호자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독일에서도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해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법규화했다.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법적 관계를 인정한 다양한 선례는 조립식 가족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두 여성 작가가 ‘조립식 가족’이 태간 이야기를 선보인 에세이 『여자가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사회 기능을 고민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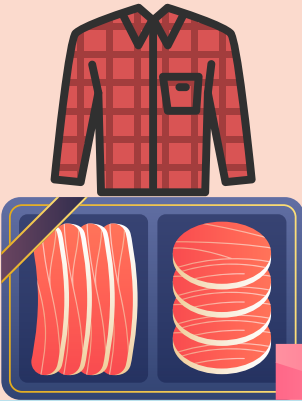
이미 가족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된 만큼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한 여론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라는 반응도 대두되고 있다. 조립식 가족을 문제적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급변한 현대사회에서 유대를 맺는 새로운 방식으로 존중하자는 것이다. 조립식 가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비친족 가구의 증가세는 멈출 기미가 없어 보인다. 지금 추세라면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것이랑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단순히 가족의 형태와 유형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새로운 가족 형태가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닐까? 

살맛나는 KNF

+

그땐 그랬지

빨간
내복에서
콘서트
티켓까지



효도
선물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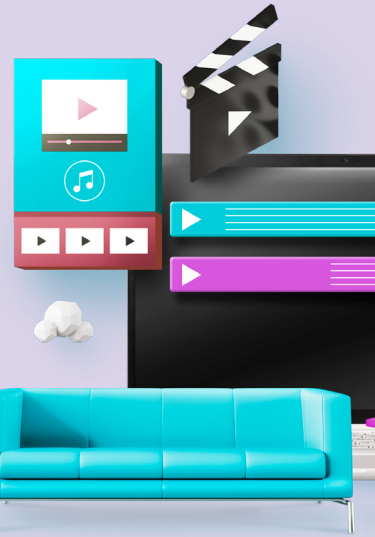
변천사

• 빨간 내복에 담긴 훈훈한 의미 •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빨간 내복은 효도 선물의 상징이었다. 취업에 성공해 생애 첫 월급을 받은 설레는 날이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복 가게로 달려갔다. 부모님께 드릴 빨간 내복을 사기 위함이었다. 양손에 든 내복 두 벌을 건네받은 부모님은 '이제야 네가 어른이 됐다'며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내복 상자와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 시절 빨간 내복은 일종의 독립의 의미이자 앞으로 더 많이 효도하겠다는 다짐의 표상이었다. 당시의 주택 난방시설은 지금에 비해 보잘 것 없었다. 최신식 아파트에서도 연탄을 뿜 정도였으니, 여느 가정집의 사정이라야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복은 아주 유용하고도 자주 갈아입는 방한용품이었다. 왜 다들 부모님께 드릴 첫 월급 선물로 내복을 택했는지 능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왜'가 남는다. 내복 색깔은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

붉은색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내쫓고 무병장수를 불러오는 색으로 여겨졌다. 자식들은 빨간색이 지닌 이러한 의미를 지금껏 놓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전해 드리고 싶었을 테고, 그 마음이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풍습으로 굳어졌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1960년대 염색 기술의 한계 때문에 물 빠짐이 적은 빨간색으로 내복을 염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빨간 내복을 널리 선물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유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빨간 내복을 선물했다는 점이 중요할 뿐이다.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포용, 단단하고 부드러운

1세대 현대 조각가이자 모자상과 가족상을 통해 '사랑과 화합'의 의미를 전했던 조각가 민복진(1927~2016)의 휴머니스틱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는 조각'을 제작·배치해 '배리어-프리'를 시도한 것이 눈에 띈다. 가족을 넘어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연대감을 되새겨 보게 되는 5~6월에 안성맞춤인 전시다.

전 시 EXHIBITION

- 장소: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 기간: 2024. 3. 8.~12. 8.
- 티켓: 무료~5,000원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 국악'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악(樂)·가(歌)·무(舞)를 다채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둘째 주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행해지던 전통 국악이, 넷째 주에는 성악, 무용 등 장르 특화 프로그램과 계절의 분위기를 담은 창작 국악 등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들이를 기대하고 있다면, 한발수목원의 경치와 함께 우리 음악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본 공연을 추천한다.

상 연 SHOW

- 장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
- 기간: 2024. 3. 9.~11. 23. 매주 둘째, 셋째 주 토요일(8월 제외)
- 티켓: 전석 2,000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연이어서 가족과 아울러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달이다.
 6월은 환경의 날과 현충일이 나란히 맞으며, 사회와 자연까지 멀리 시선을 떨구게 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시선이 가닿은 자리에서 두런두런 피어오르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모처럼 주위를 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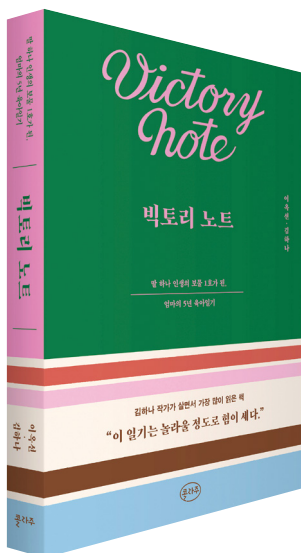
빅토리 노트

 카피라이터로 유명했던 김하나 작가의 어머니가 딸을 낳은 날부터 다섯 살 생일까지 기록한 육아일기, '빅토리 노트'. 딸 인생의 보물 1호인 '빅토리 노트' 원본에 현재 시점의 모녀의 코멘트, 어머니 이옥선 작가가 틈틈이 써온 에세이까지 더해져 46년 세월을 잇는 책으로 재탄생했다. 한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씨앗이 돼 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가족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되새겨 보자.


책

BOOK

 출판사: 콜라주
 저자: 이옥선, 김하나






인사이드 아웃 2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캐릭터로 표현해 전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은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두 번째 이야기가 9년 만에 돌아왔다. 주인공 라일리가 13살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자 감정 컨트롤 본부에 '불안'을 비롯한 새 감정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다. 연령 불문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영화인 만큼 가족과 함께 관람해 볼 것을 추천한다.

영화

MOVIE

 감독: 켈시 맨
 출연: 에이미 포엘러, 마야 호크, 루이스 블랙 등
 개봉: 2024. 6. 12.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어 ‘행복’한 것 _____ 『행복의 기원』

행복이란 무엇일까. 실로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터다. 여용길 부장은 이 책을 만나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수많은 기준들 안에서도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 저자가 근접한 답을 주었다.

Voice. 여용길 부장

• 『행복의 기원』 •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는 행복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서은국 교수가, 인간이 추구하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행복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야기합니다.

• 여용길 부장의 추천사 •



저자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절대적인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해야 하는 직장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장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느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을 고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말이라 생각해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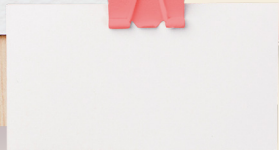


‘문학의 속삭임’은 신청을 통해 우리 임직원 중 한 분을 선정,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큐알코드 스캔 후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 호에 선정된 여용길 부장님이 읽어주는 ‘행복의 기원’의 일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또 하나의 절대적 자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다. 먹는 쾌감을 느껴야 음식을 찾듯 사람이라는 절대적 생존 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을 아주 좋아해야 한다. 타인을 소, 닭 보듯 바라보는 사람에게 친구나 연인이 생길 리 없다.

이런 ‘사회적 영양실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왕성한 ‘사회적 식욕’을 갖는 것이다. 식욕의 근원은 쾌감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때 뇌에서는 사회적 쾌감을 대량 방출한다. ‘강추’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쾌감을 예민하게 느꼈던 자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산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사람과 무관해 보이는 감정들도 사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들이



김★미(4443)

- 나 들이 어디로 떠나봄?
- 들 산, 강, 바다로 떠나봄?
- 이 보다 재밌는 <원자력연료>로 떠나봄!



장★선(5567)

- 나 서니 쌀쌀해 다시
- 들 어가고 싶어지는
- 이 부자리의 따스함!



이★종(6713)

- 나 무그늘 아래에 응기종기 모여 앉아
- 들 썩들썩 웃고 떠드는 나들이
- 이 런 소소한 행복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숙(7154)

- 나 오니
- 들 어가기 싫게
- 이 어지는 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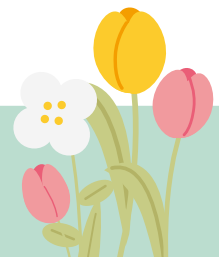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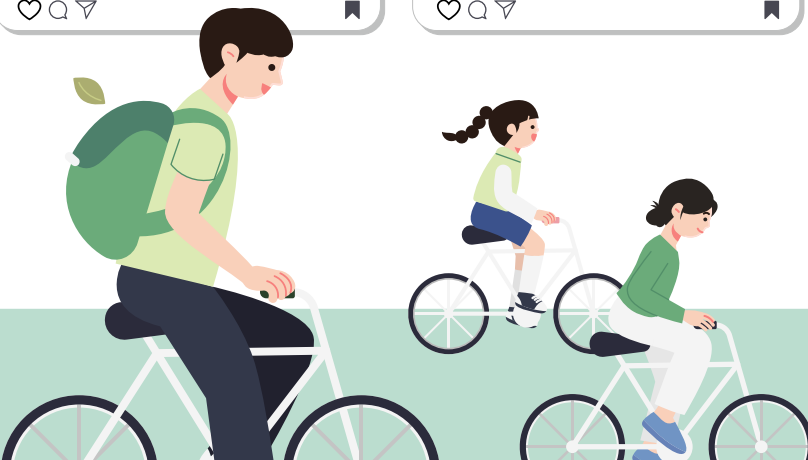
이★숙(2413)

- 나 가봐도 별 것 없고
- 들 어올 땐 '역시 집이 최고야' 생각해도
- 이 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는 나!



이★정(3738)

- 나 랑
- 들 기름 막국수 먹고
- 이 차로 아아어때?





#현충일



박★화(1273)

- 현** 충일에 가족과 함께
- 충** 남극립대전현충원을 찾아
- 일** 렬로 서서 묵념을 올렸네요!



김★태(8311)

- 현** 재 우리가 있게끔 해주신 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 충** 분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된다
- 일** 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오롯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잊지 말자



이★돈(4728)

- 현** 재에
- 충** 실하자
- 일** 상을 만끽하며!



이★선(2795)

- 현** 혹되면 안 되는데
- 충** 전하려면 어쩔 수 없다
- 일** 단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한★윤(7773)

- 현** 충일입니다
- 충** 성을 다한 선열을 위해
- 일** 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어린이날



이★건(3822)

- 어** 려올 때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기대했다
- 린** (난): 텐도 게임기를 선물 받았던 그날이 떠오른다
- 이** 제는 훌쩍 커버린 어른이 되었지만
- 날** 위한 선물은 잊지 말아야지



김★영(1605)

- 어** 린 땐
- 린** (인): 형이 내 친구였는데
- 이** 제는
- 날** 생전에 소주가 내 친구구나



독자 마당

• 독자 후기 •

날이 따뜻해져 어디로 봄나들이를 가볼까 고민하는 도중에, '즐거움 심포' 코너에서 춘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글에 적혀있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무서워 레고랜드는 건너뛰고 제이드가든과 김유정역을 가보아겠습니다. 사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1605)



매호 <원자력연료>를 반갑게 잘 읽고 있습니다. 새봄의 향긋한 꽃내음이 그윽하게 퍼질 듯한 3+4월호 표지 사진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이처럼 알차고 유익하며, 행복의 나라를 활짝 펼치는 꿀맛 같은 이야기로 가득한 <원자력연료>와 함께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다음 호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 이★길(7498)

• 3·4월호 스토쿠 문제&정답 •

4	3							8
	7				3			9
2			4	9				
	2		7	4	1			6
1			8	6	5		4	
				2	4			7
5			1					3
9							6	1

4	3	9	6	1	2	5	7	8
6	7	1	5	8	3	4	2	9
2	5	8	4	9	7	6	1	3
8	2	5	7	4	1	3	9	6
7	6	4	2	3	9	1	8	5
1	9	3	8	6	5	7	4	2
3	1	6	9	2	4	8	5	7
5	8	2	1	7	6	9	3	4
9	4	7	3	5	8	2	6	1

• 3·4월호 스토쿠 당첨자 •

김★주(4024)	김★태(1232)	김★일(0423)	김★욱(7628)	김★신(5457)	나★현(5293)	나★준(1310)	노★애(6036)
박★진(9763)	박★희(7526)	배★리(2772)	송★희(1754)	신★인(4845)	심★옥(3210)	양★민(0021)	양★은(6424)
오★연(5438)	우★형(7526)	윤★구(3374)	이★경(7199)	이★희(0262)	이★선(2795)	이★홍(2690)	정★종(1179)
주★영(8230)	최★은(7887)	이★선(2795)	한★호(2273)	황★연(2273)	황★준(5219)	정★석(3070)	이★훈(2732)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응모 기간 상시모집
- 📍 당첨자 선물 커피 상품권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원자력연료>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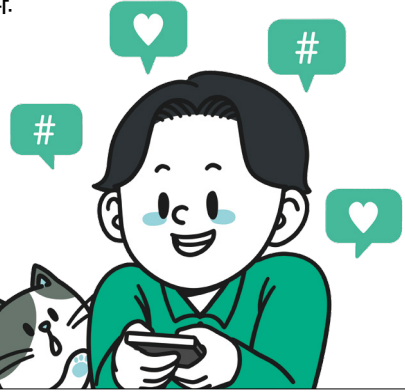


<원자력연료>와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소통 증진을 위해 독자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① 해시태그 이벤트

KNF매거진 <원자력연료> 독자 여러분을 위한 해시태그 이벤트!
주제어로 지어본 N행시, 주제어 관련 사진과 사연을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7+8월호 주제어

#해수욕장 #매미 #무더위

② 두뇌 운동에 좋은 SUDOKU 게임

스도쿠는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구성된 표에 1~9의 숫자를 채우는 게임입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완성한 결과지를 사진 찍어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7	8	6	1			
		8			3			
5	6			9			1	
1				7			8	5
			3	4	5			
6	3			1				7
	5			2			9	8
			6				5	
			5	3	7	1		

📅 마감 기한 2024년 6월 30일까지

🎁 당첨자 선물 1만원 커피 상품권

📢 당첨자 발표 7+8월호 독자마당 페이지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응모하실 때는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Feel grateful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5월,
환경의 가치와 호국장병의 의로움을 되새겨 보게 되는 6월을 맞아
일상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